

칼럼 Column

슈퍼 라이브러리를 꿈꾸다

최 호 남

한국전문도서관협회 회장
hnchoi@kisti.re.kr



“정녕 우리의 뜻이 가상할 진대 하늘이시여 우리를 돌보소서 2009년 2월 5일자로 지구상 최초로 출범하는 한국 전문도서관협회의 앞날에 희망과 번영의 빛을 내려 주소서.”

한국전문도서관협회(KASL)의 출범을 알리는 초대 회장 수락 인사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1972년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전문연구도서관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도서관협의체’를 만든 지 어언 40년 가까이 되어간다. 이들 전문도서관들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여 각기 주제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도서관단체로 분화했다가 다시 2월 5일자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였다.

1970~80년대에는 전문도서관들이 국내 도서관계를 이끌어 갔다. 도서관 업무 자동화 등 정보기술의 도서관 도입을 주도했던 그룹이 연구단지 도서관들이었다. 매년 새로운 도서관 정보기술과 서비스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서비스 창출에 앞장섰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대학이나 다른 분야 도서관에 채택되어 운영되기가 일쑤여서 우리 과학기술계 도서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었다. 일찍이 도서관 정보 자원의 공동활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목록의 개발과 상호 대차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거 도서관 단체는 소위 기부자

원(Contributed Resources)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인력, 시설, 심지어 일부 운영비까지도 회장기관이나 회원기관에 의존했던 시절이고 어떤 면에서는 호시절이었던 셈이다. 각 회원도서관들도 인력 등의 여유가 있어 도서관단체를 꾸려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우리들 전문도서관 서비스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도서관들이 변화의 뒷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전문도서관 단체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각 도서관들이 제공하던 기부자원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회원기관들의 회비만으로 꾸려가기엔 살림살이가 벅차다. 전문도서관들의 형편이 과거와 달리 점점 열악해지는 이유는 그동안 해왔던 일의 상당부분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쟁자가 컴퓨터라는 생각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이다. 한 주제영역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서라면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고안해 낼 수 있고, 해당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성사시키는 일은 개인이 혼자하기엔 벅찬 일이다. 그래서 KSLA와 같은 전문도서관 단체가 필요하고 설립의 당위성을 갖는다.

‘전문’이란 말은 ‘일반’이라는 말과 대비된다. 전문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달라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지식국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데 비해 전문도서관은 주제 영역별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통해 연구개발 및 교육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과거엔 개별 회원도서관들의 역량으로 전문도서관 단체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전문도서관들의 결집된 힘으로 회원 도서관들을 지원해야 하는 때인 것 같다. 국가적인 제도나 상위 도서관 단체가 있지만 아직 우리 현실을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께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지』(통권 7호(2008.6.): 2-5)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제도가 우리를 전문가로 키워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수호할 수밖에 없다. 전문직 사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이들을 통한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전문도서관협회는 영역별로 ‘슈퍼 라이브러리언’ 양성과 ‘슈퍼 서비스’ 창출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구글(Google)이 전 세계 많은 위대한 도서관들을 온라인으로 엮어 냈듯이 KSLA는 산하 모든 회원도서관들을 하나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을 서두를 것이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슈퍼 라이브러리언의 양성과 서비스 창출에 투자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던가. KSLA는 하늘이 내려준 소명을 받들어 이 나라의 ‘슈퍼 라이브러리언’을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 

▣ 제45회 도서관주간

우리협회에서는 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제45회 도서관주간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09년 4월 12일(일) ~ 18일(토) (1주일간)

□ 주제 및 표어

- 공식주제 :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관(이화여자대학교중앙도서관)
- 공식표어 : 늘 숨쉬는 그곳, 행복을 주는 도서관(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도서관,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부산대학교도서관)

* 주제 및 표어는 회원대상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 입니다.

□ 주 최 : 한국도서관협회

□ 주 관 : 회원도서관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홍보용 포스터 1종과 표어 2종을 제작하여 회원도서관에 배포합니다.

▣ 도서관 속의 과학 강연

우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공동주최로 전국의 중·소도시 회원도서관 11곳에서 '도서관 속의 과학 강연'을 개최합니다. 지역주민의 지적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도서관 위상향상에 기여 하고자 과학저술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인터뷰 및 사진회 등의 시간을 갖는 행사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개 최 일	도 서 관 명	강 사
4월 16일(목)	김제시립도서관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4월 17일(금)	홍성도서관	이정모(안양대학교 교수)
4월 18일(토)	양구도서관	김훈기(전 동아사이언스 기자)
4월 27일(월)	한라도서관	김상욱(부산대학교 교수)
6월 24일(수)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박석재(한국천문연구원 원장)
6월 27일(토)	포항시립포은도서관	이용복(서울교육대학교 교수)
7월 25일(토)	사천도서관	장현영(경북대학교 교수)
9월 5일(토)	경북도립안동도서관	홍승수(서울대학교 교수)
9월 26일(토)	양평군립중앙도서관	안상현(한국천문연구원 박사)
10월 10일(토)	양주시립덕정도서관	최우영(서울대학교 교수)
11월 26일(목)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이명현(연세대학교 천문학박사)

* 2008년에는 "과학, 책으로 말하다!"라는 사업명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표지소개

2009년 「도서관문화」 4월호에는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도서관을 소개한다. 한밭도서관은 2007년 9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행정자료, 향토자료 등의 보존과 서비스에도 힘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 <http://www.library.ca.gov/>)은 185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다. 본관인 스탠리 모스크 도서관과 주의회(Stanley Mosk Library & Courts Building) 건물은 2009년 3월부터 리노베이션을 위해 휴관하며, 표지에는 도서관과 주의회 제2관(Library & Courts Building II) 건물의 사진을 수록하였다.